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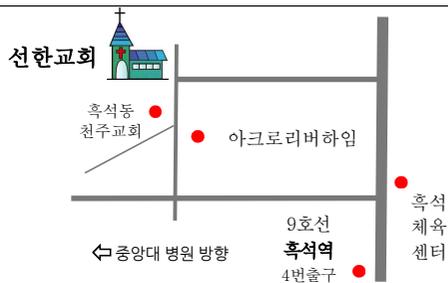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10)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2장 (통일찬송가 48장)
교 독 문	교독문 13 (시편 23편)
찬 양 과 경 배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대 표 기 도	조 윤 익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3장 1 ~ 15절
설 교	하나님의 동역자들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권고와 훈계를 들으라 (잠19:18-29)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주일예배는 1,2부 각 20명씩 드립니다.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이번주 범위 (창세기42장 ~ 출애굽기 40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통 347)

본문 : 마태복음 3장 11~12절

말씀 : 침례 요한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자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 사역의 역할과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의 신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며 스스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올 때 자신을 스스로 높히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그런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나 유명해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위기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직분에 대한 분명한 위치와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넘어서지 않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높여줄 때 침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다”라며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처럼 평소 겸손하던 사람도 직분을 받은 후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기 전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직분이 주어진 후에는 높아진 마음으로 자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인격이 안 되면 그 직분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울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낮출 수 있는 인격이 돼야 직분으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실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불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리하시는 일을 합니다.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하십니다. 알곡이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열매가 없는 것은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있고, 상처로 인해 돌처럼 완고하고 가시 같은 세상 것을 끊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때 그 마음 밭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 열매 맺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동역자들 (고전3:1-15)

서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9절)

본론

1. 세가지 비유

- (1) (비유) 어린아이들(육신에 속한사람)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1,2절) : 시기와 분쟁(3절)
- (2) (비유) 밭에 심는 것과 물주는 것 : 누가 더 중요한가?(심는이, 물주는이, 자라게 하시는 이)(4-8절)
- (3) (비유) 건축 비유 : 터를 닦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움/ 공적에 따라 상을 받음(10-15절)

2. 교훈

- (1) 육신에 속한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 (2)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 (3) 동역자들은 언제 상을 받게 되는가?

결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열심히 씨를 심고 물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운익 장로	조계승 장로
---------	--------	--------

매일 Q.T.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날짜 : 4월 12일
---------	----------------------------	-------------

찬양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본문	출애굽기 4:10-17
말씀요약	모세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며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주저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이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하십니다.
목상질문 1	할 말을 가르치리라 4:10-12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나는 내 능력과 하나님 능력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나요?
목상질문 2	아론과 동역하라 4:13-17 고집 피우며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하시면서도 어떤 배려를 더하셨나요?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어떠한가요?
한절목상	출애굽기 4장 10-11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두려워서냐 혹은 겸손해서냐'라는 논란을 떠나 이것은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사명 앞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입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인내하며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제게도 부어 주소서.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말씀을 거스르는 핑곗거리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삶의 자리를 떠나는 모세”

찬양과 기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새 302)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What a unnecessary waste!)라는 제목으로 라이프지에 실렸던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의 이슬 같은 사라짐이 이해되지 않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온 기자에게 아내는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소서! 주님을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서 소멸시키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훗날 아우카 부족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회자로 헌신한 부족의 한 사람은 짐 엘리엇과 같은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았던 짐 엘리엇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생활의 패턴들을 내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더 늦으면 안돼!” 라고 결심하고 일어나 담대하게 떠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는,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말씀 나누기	출애굽기 4:18~23
목상포인트	40년간 뿌리내린 삶의 터전이었지만, 모세는 사명을 따라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그분을 붙잡고 가는 이의 앞길을 완전하게 예비하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알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는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백성이요 '나의 장자'라 부르시며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의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어떤 말을 했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가 손에 잡은 것은 무엇인가요?(18, 20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야 할 자리,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약속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제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소서. 불신과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	날짜 : 4월 16일
찬양	찬송가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본문	출애굽기 5:15-6:1		
말씀요약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노역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가려 한다며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에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탄식하며 호소하자,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백성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목상질문 1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 5:15-21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누구를 찾아갔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누구에게 호소하나요?		
목상질문 2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세 5:22-6:1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고민과 고통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토로하나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5장 21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누군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비난은 곧 내부 분열로 이어집니다. 비난의 칼은 곧장 모세에게로 향합니다. 모세는 자유와 해방의 지도자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원흉으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는 바로의 피가 이것입니다. 비난과 분열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계략입니다. 이는 약속의 성취 앞에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또 호소할 대상을 바르게 파악하는 지혜를 주소서. 예상치 않은 문제로 고통당할 때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마음을 합해 문제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진실히 간구하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의 장애물을 인내하며 잘 통과하게 하소서.		

매일 Q.T.		'내 아들, 내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날짜 : 4월 13일
찬양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본문	출애굽기 4:18-23		
말씀요약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앞에서 모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며,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실 것임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4:18-20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 주신 애굽 상황은 어떠했나요? 내가 소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난관은 무엇이었나요?		
목상질문 2	거듭 보장하시는 구원 계획 4:21-23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믿음의 길에서 겪는 약간의 굴곡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4장 20절 물건으로서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목자로 살아가며 의지했던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애굽 땅에 펼치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쥔 모세, 이제는 그 지팡이가 모세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더라도 온갖 난관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인정하며 두려움 없이 충성하게 하소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담대히 붙잡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매일 Q.T.	가족의 신앙이 온전하면 소명의 길도 안전합니다	날짜 : 4월 14일
---------	------------------------------	-------------

찬양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소서
본문	출애굽기 4:24-31
말씀요약	모세가 어느 숙소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자르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아론이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 4:24-26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공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걸림이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서다 4:27-31 소명의 첫걸음을 땀 모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세심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절목상	출애굽기 4장 30-31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신들과 함께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고 고난을 살피셨다고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고 방문하셨으며, 고통의 현장에 찾아와 조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그분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제 심령과 언행을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길을 걷는 데 합당한지 살피게 하소서. 부르심의 자리마다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백성을 학대하는 악함	날짜 : 4월 15일
---------	-----------------------------	-------------

찬양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본문	출애굽기 5:1-15
말씀요약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허락해 달라 합니다. 바로는 그들이 백성의 일을 쉬게 하려 한다며 백성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백성에게 주지 않고 전과 같이 벽돌 수를 채우라고 독촉합니다.
목상질문 1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 5:1-5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가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목상질문 2	백성을 더욱 학대하는 바로 5:6-14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불의하게 미움과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절목상	출애굽기 5장 1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보내라’는 ‘해방하다,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해 하나님 백성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위한 노예였고 그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요 자유인들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나 시큰둥한 반응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꺾이고 불평을 일삼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더 큰 시련을 초래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걷고 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